

2000년 이후 중국학계의 조선과 여진 관계 연구 동향

박 정 민*

국문초록

이 글은 2000년 이후 중국 학계의 조선과 여진 관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변방의 소수민족으로 명과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여진이 굴기하여 대제국까지 건설한 것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역사가들은 후금과 후금 이전 여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동북공정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역사 인식 등은 명대 여진 관계에도 투영되어 미묘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조선과 여진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동북삼성의 연구자, 특히 길림성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북공정 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연구는 統一的多民族國家論에 기반하여 여진을 명에 소속된 세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신진 연구자가 배출되며 기존 관계사에 집중되었던 연구가 영토, 자료, 인물, 무역 등 다양한 형태로 지평이 확장되었다.

아직 한국과 중국 학계 간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조선과 여진의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과 시각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신진 연구자들이 양측의 자료도 이용하고, 양자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향후 양국 간의 역사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의 연구자들을 역사 교류의 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선, 여진, 연구 동향, 동북공정,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인물사 |
| II. 관계사 | VI. 무역사 |
| III. 영토 문제 | VII. 맺음말 |
| IV. 자료 관련 | |

* 전북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lovehistory99@hanmail.net

I. 머리말

조선시대 여진은 조선의 북방에 거주한 민족이었다. 이들은 고구려·발해 당시에는 勿吉과 靺鞨로 불리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이후에 여진으로 불리며 금을 건국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멸망 이후 현재의 東北三省과 한반도에 흩어져 살며 자립을 꾀하는 한편, 고려·원·명·조선 등과 교류하였다. 여진인은 내부의 세력 분화, 경제적 조건의 변화, 다른 종족과의 무력 충돌, 조선과 명이라는 강대국과의 관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거주 지역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

후일 建州女眞에서 누르하치(奴爾哈齊: Nurhachi)가 등장하여 후금을 건국하고, 홍타이지(Hong Taiji, 皇太極)가 入關하여 전 중국을 통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변방의 소수민족으로 명과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여진이 굴기하여 대제국까지 건설한 것은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 했다. 따라서 현대 역사가들은 후금, 한발 더 나아가 후금 이전 여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孟森으로 대표되는 학자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으로 여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¹⁾ 白鳥庫吉, 稻葉岩吉 등과 같은 만선사학자들은 일제가 원활하게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여진을 연구하였다.²⁾

이후에도 여러 연구 성과가 누적되었지만,³⁾ 최근 중국의 연구 성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고구려와 발해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2002년부터 실시한 동북공정의 역사 인식 등은 후대인 명대 여진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즉, 최근의 연구 성과들에서는 統一的多民族國家論의 관점에서 당대를 바라보고 있다.⁴⁾ 따라서 이러한 경향이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기존에 관계사에 집중되었던 연구가 영토,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지평이 확장되는 측면도 있다. 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중국의 연구 현황을 소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파악한 2000년 이후의 박사학위 논문은 5편,⁵⁾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63편이다.⁶⁾ 이 가운데 양자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박사학위 논문만 4편, 논문은 28편으로 대다수를 이룬다. 이외 영토, 자료, 인물, 무역과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⁷⁾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몇 개의 논문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1) 孟森, 『明元清系通記』, 中華書局, 2006.

2) 박찬홍, 「白鳥庫吉과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정상우, 「滿鮮史와 日本史의 위상 - 稻葉岩吉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28, 2013.

3) 관련 연구 동향은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박정민,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2015; 劉小萌(지), 이훈·이선에·김선민(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4) 대표적으로 楊陽 등이 저술한 『明代東北疆域研究』를 들 수 있다(『明代東北疆域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8).

5) 王臻, 「朝鮮前期與明建州女眞關係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於曉光, 「明朝與朝鮮圍繞女眞問題的交涉研究(1369年~1619年)」,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陳放, 「朝鮮與女眞、滿族諸政權關係變遷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劉陽, 「朝鮮初期中朝自然界河的形成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聞家禎, 「《建州紀程圖記》《建州聞見錄》校釋與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8.

6) 석사학위논문은 본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표 1> 2000년 이후 주제별 중국 학계의 조선과 여진 연구 현황

관련 사이트⁸⁾ 등에서 관련 주제, 저자 등을 검색한 것으로 연구 동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의 조선과 여진에 대한 연구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보자 한다.⁹⁾ 이를 위해 논문의 성격에 따라 크게 관계사, 영토 문제, 자료 관련, 인물사, 무역사 등으로 구분하였다. 필자가 관련 논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해석했을 두려움도 있지만, 현 단계까지 이루어진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한국학계에 소개하여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II. 관계사

조선인과 여진인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기도 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밖에 거주하며 조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때로는 양자 간에 혼인하고 교역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때로는 조선의 변경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여기에 단순히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명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에 많은 학자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한 것은 刁書仁이다. 그는 1980년대 누르하치의 우라(烏拉 : Ula) 정토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¹⁰⁾ 여진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 1990년대 후반부터 成化 연간 조명연합군의 건주여진 정벌을¹¹⁾ 시작으로 조선 초부터 중기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말선초(원명교체기)는 조선과 여진 관계의 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刁書仁은 원말명초 한반도 북부에 거주한 여진인이 조선과 명에 귀부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원말의 혼란을 틈타 고려와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압박하여 그들을 驅逐하거나 귀부하게 하여 후일 이들을 조선의 ‘城底野人’, ‘向化女眞’ 등으로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1403년경부터 시작된 영락제의 초무를 조명하여 명도 이 지역 여진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¹²⁾

刁書仁은 영락제의 여진 초무 때문에 발생한 두만강 유역 여진인의 관할권 분쟁과 모련위의 개설, 이로 인한 1410년의 제1차 여진 정벌 등을 모련위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여기에서 조선이 모

	관계사	영토사	자료 관련	인물사	무역사	합계
박사논문	3	1	1			5
일반논문	28	15	7	8	5	63

8) <http://www.cnki.net/>과 <http://www.duxiu.com/>이다.

9) 원래는 대응 방안까지 다루려고 하였으나 분량 문제와 더불어 명대 요동도사, 노아간도사, 청사의 중국사 편입 문제 등과 연동되므로, 후일 별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0) 刁書仁, 「論努爾哈齊征烏拉之戰」, 『吉林師院學報』 1987-2.

11) 刁書仁, 「明成化年間明與朝鮮兩次征討建州女眞」, 『史學集刊』 1999-2.

12) 刁書仁, 「元末明初朝鮮半島的女眞族與明、朝鮮的關係」, 『史學集刊』 2001-3.

련위를 영향력 아래에 두고, 후일 6진 개척을 하며 ‘성저야인’, ‘번리’ 등으로 구축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모련위가 여전히 명조에 조공하고 명의 신민이 되려고 했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고 있다.¹³⁾

또한, 여진 세력 가운데 중요한 斡朵里(후일 건주좌위)가 依蘭에서 두만강 일대 → 봉주 → 회령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후 1433년의 ‘알목하 사건’으로 동맹가첩목아가 살해되자 조선은 6진을 개척하였고, 이 압박 때문에 건주좌위가 건주위의 이만주에게 이주하였다고 이해하였다. 특히, 그는 ‘화이질서’의 시각으로 조선과 명, 여진의 다면적 관계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⁴⁾

刁書仁은 景泰・天順 연간의 건주삼위와 명과 조선의 관계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건주여진에 대한 명 최초의 무력 대응이자 조선과 연합하여 주장인 이만주를 살해한 ‘성화 3년(1467)의 역’의 정벌 원인과 결과에 대해 집중하였다. 그는 건주여진이 명의 변경을 공격하게 된 원인을 ① 약탈 경제의 확대, ② 명과 조선에서 ‘犬羊之輩’로 하대하는 시선에 대한 복수심, ③ 正統 연간의 여진인 조공 제한으로 경제적 불만 고조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문에 건주여진의 세력이 쇠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진인의 원한은 더욱 강해졌고, 이후에도 이들의 변경 침략은 계속되는 등 근본적으로 양자의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조선에도 왕래하고 있었고, 조선 역시 이들을 수용하였다. 원칙적으로 조선은 건주여진과 사사롭게 교통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은 명의 간섭을 받았고, 조선이 사과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명은 조선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실상 명 조정의 국력 쇠퇴와 주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위신 하락 결과라고 보았다.¹⁵⁾

이후 누르하치의 굴기로 조선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위원채삼사건이 발생하며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당시 임진왜란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조선은 1595년 12월에 신충일 등을 파견하였고, 그는 조선의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누르하치가 거주한 피알라성과 당시 건주여진의 사회, 생활, 생산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¹⁶⁾

刁書仁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료를 열거한 후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고,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한계점도 있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 보이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당대를 바라보았지만,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된 연구들에 비해 조선과 관계를 나름대로 균형 있게 서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후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王臻이다. 그는 일련의 논문을 통해 『朝鮮前期與明建州女真關係研究』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¹⁷⁾ 이 논문은 이전과 달리 체계적으로 한·

13) 刁書仁・王劍, 「明初毛憐衛與朝鮮的關係」, 『明史研究』 2001-1.

14) 刁書仁, 「論明前期斡朵里女真與明、朝鮮的關係」, 『明清史』 2002-3; 刁書仁, 「正統年間建州左衛西遷考實: 兼論東亞地區女真與明朝、李氏朝鮮的關係」, 『中國邊疆史地研究』 2010-4.

15) 刁書仁, 「明成化初年對建州三衛用兵考述」, 『中國邊疆史地研究』 2008-4; 刁書仁, 「景泰・天順年間建州三衛女真與明朝、朝鮮的關係」, 『史學集刊』 2010-1. 이와 같은 내용과 시각으로 작성한 연구도 있다(王磊, 「1435~1464年女真對明朝與朝鮮的朝貢爭端」, 『長江叢刊』 2016-6).

16) 刁書仁, 「朝鮮使臣所見的建州社會 - 兼論後金建國前與朝鮮的關係」, 『滿族研究』 2001-2.

17) 王臻, 앞의 논문, 2004. 그는 이 논문을 보완하여 2005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朝鮮前期與明建州女真關係研究』, 中國文史出版社, 2005).

중·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머리말 부분에서 당시까지 연구 성과의 공통점으로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계를 깊은 단계까지 다루지 못하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사실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론을 고도화하여 전문 주제로 진행한 뒤, 史論을 결합하는 방식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여기에 한국의 연구 성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표현했지만, 관점에 비교적 큰 편견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⁸⁾

본문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고려대부터 조선과 건주여진 관계의 역사적 연원, ② 15세기 조선과 명조의 건주여진에 대한 쟁탈, ③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기까지 조선과 명, 건주여진의 삼각관계, ④ 조선전기 건주여진의 경제무역 교류에 관한 것이다. 王鑰는 그중에서도 태종대 두만강 유역 여진에 대한 명과 관할권 쟁탈부터 세종대 건주여진의 회유책과 두 차례에 걸친 파저강 정벌, 세조대 浪孖兒罕 사건과 董山の 초유 및 조명연합군의 건주위 정벌까지 밀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15세기에 여진이 조선에 행한 ‘進上肅拜’의 성격이 명에 행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여진은 명과 조선에 ‘양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저서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건주여진을 독립적 세력으로 보지 않고, 명에 귀속된 위소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본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영락제의 10처를 허가하는 명의 以夷制夷 정책이자 관용책이라고 보았다. 또한, 凡察 등이 李滿住에게 이주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소수민족인 여진족이 중국을 향하는 것은 ‘천성’이었다고 평가하였다.¹⁹⁾ 낭발아한 사건도 명이 조선보다 우위에 있던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처음 王鑰이 여진 관계에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한 것은 조선과 여진의 무역이었다. 즉, 조선의 변경에 개설했던 경성 및 경원, 만포, 무산 등의 互市무역에서 여진인이 초피 등 토산물로 조선의 耕牛와 철제 농기구 등을 교환한 것을 검토한 것이다. 호시무역의 결과 조선인과 여진인의 우호관계가 강화되고, 여진의 경제와 군사력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규명하였다. 결국 이러한 점은 여진인 굴기의 기초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였다.²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초창기의 王鑰는 건주여진에 대한 관점을 따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후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당시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²¹⁾ 또한, 성종~선조 중반까지 100여 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일부 사건, 시기만 연구해 오던 건주여진에 대한 이해를 집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²²⁾

18) 예를 들어, 한국학계는 여진족을 ‘外來戶’, ‘침입자’로 보고, 여진인 구축과 박해를 조선의 고유 영토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진인을 민족적으로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민족관을 반영한다고 평가하였다. 일부 학자는 조선의 ‘북진정책’을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이것도 일종의 이기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王鑰·劉玉, 「關於朝鮮與明代建州女真關係研究的理性思考」, 『東疆學刊』 2004-3).

19) 이러한 사례들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

20) 王鑰, 「明代女真族與朝鮮的邊貿考述」,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2-1. 이후 박사학위논문과 저서에 한 개의 장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였다.

21) 동북공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劉子敏의 영향을 받은 점도 있다고 보인다.

22) 鄭巖도 2010년에 中央民族大學에서 건주여진에 대한 박사학위论문을 제출하였다(鄭巖, 「明前期建州女真歷史考察」,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그는 孟森의 『明元清系通記』를 중심으로 건주여진 수령 가족의 계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홍무제(1368년)부터 성화 3년(1467년)까지 건주여진의 형성과정과 발전, 쇠퇴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건

於曉光是 洪武 시기부터 사르후(薩爾滸: Sarhu) 전투(1619년)까지 4개의 시대로 나누어 명과 조선의 관계 국면 중 여진을 둘러싼 문제를 순차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명과 조선의 대여진 외교 이념을 밝히고 있다.²³⁾ 그는 초기에 동북면 여진을 둘러싸고 명과 조선이 대립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토목보의 변’ 이후 명은 ‘이이제이’로 조선을 이용하여 여진을 견제하였다고 하며 성화 연간의 건주여진 정벌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 연구는 조선이 명에 사대했던 점 및 여진인 송환 문제 등 비교적 명이 조선의 우위에 섰던 사실들만 강조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조선이 ‘사대’와 ‘복진’을 결합하여 대여진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했고, 이것을 외교 정책의 지혜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의 연구는 명과 조선의 여진 정책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았고, 조선의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과 『명실록』 같은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萬曆武功錄』, 『東夷考略』, 이때까지 이용하지 않던 『吏文』 등을 이용하여 더욱 풍부하게 논리를 전개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후 종합적으로 조선과 여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등장하였다. 陳放은 원말부터 청까지 시기를 설정한 후, 조선과 여진·후금·청의 관계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²⁴⁾ 중국과 주변 세력들 사이에 맺었던 조공 관계를 ‘封貢關係’로 규정한 뒤, 조선과 여진 관계에 투영하였다. 고려와 여진의 納貢回賜 관계가 조선에서도 계속되었다며 그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陳放은 여진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조선의 도움이 필요했던 반면, 조선은 영토 확장과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이들의 納貢을 허가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주변국이 맺었던 전통적인 ‘봉공관계’와 다른 불완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²⁵⁾ 중국의 전통적 조공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양자관계를 불완전하게 본 점에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조선 전기 여진관계에 대해 종합적이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대여진 관계 연구와 달리 선행 연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논지를 강화한 점도 평가할만하다.

이외 개별 연구 성과도 상당량이 축적되어 있다. 鄭紅英은 태종대 명과 조선의 동북면 여진관할권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조선에서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을 번리로 삼기 위해 명과 쟁탈전까지 벌였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그 때문에 1410년에 모련위 정벌을 단행한 것이라며 명의 우위를 주장하였다.²⁶⁾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의 견해가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처럼 단

주여진이 명조의 통치하에 동북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내용 즉, 명 조정에 ‘臣屬’한 사실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둘째, 연구 범위의 적절성 문제이다. 조명연합군의 ‘성화 3년의 역’으로 건주여진이 위기를 맞은 것은 맞지만, 이들은 오래지 않아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 즉, 성화 3년을 본고의 하한으로 삼은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셋째, 다른 학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건주여진의 초설지 등에 대해서는 1910년대 이래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고, 아직 정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없다(박정민,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료만 제시한 후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23) 於曉光, 앞의 논문, 2006. 그는 박사학위논문의 내용 중 다음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였다(「明朝與朝鮮圍繞女真問題交涉論析」, 『重慶三峽學院學報』 2003-1; 「洪武時期明朝與朝鮮圍繞女真問題의 交涉初探」, 『韓國研究論叢』 2007-1).

24) 陳放, 앞의 논문, 2012. 그는 박사학위논문의 내용 중 다음의 논문을 계간지에 발표하였다(李宗勳·陳放, 「中國古代“封貢關係”新思考-論朝鮮與女真“封貢關係”的成因及影響」,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6; 陳放, 「朝鮮與女真、滿族諸政權關係變遷研究綜述」, 『內蒙古財經大學學報』 2014-4).

25) 그의 논문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과 조선의 관계가 전형적인 봉공관계라고 인식하였다.

26) 鄭紅英, 「試論明朝對女真的招撫」, 『黑龍江民族叢刊』 2010-6.

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²⁷⁾

劉陽은 1410년의 ‘경인사변’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재검토 하였다. 이것은 여진에 대한 최초의 정벌이자 관계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았던 주제이기도 하다.²⁸⁾ 그는 기존 연구에서 정벌의 원인과 영향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정벌 이후 모련위뿐만 아니라 동맹가첩목아 등 이 지역 여진인이 원한을 가지고 조선을 계속 공격한 점을 주목하였고, 이 때문에 양자는 장기간 대치하는 상태로 진행되어 서로 상당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⁹⁾

樂凡은 원말명초에 고려와 조선이 무력으로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를 점령했지만, 명 황제가 대국 이념과 역사·지리적 무지 때문에 이 지역을 조선에 준 것이라며 이러한 점은 역사적 실책이라고 하였다. 그는 건주 여진과 해서여진의 세력 규합·발전 과정에 조선과 이들의 분쟁·화호 등이 큰 영향을 끼쳤던 점은 인정했지만, 기본적으로 여진도 중국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과 여진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금이 등장한 후 양자 관계의 변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만주족의 공동체 형성은 명대 여진인의 규합, 조정 등의 결과로 중국 역사 발전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였다.³⁰⁾ 이 논문은 실질적으로 여진인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중국사의 한축을 이룬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 전형적인 중국의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謝肇華는 조선에서 최초로 이만주의 건주위를 공격한 것에 주목하여 그 원인과 경과·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군의 피해를 본 이만주 등은 명의 중재를 기대했으나 宣宗이 조선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를 계기로 민족의식이 발현하며 세력 화합과 민족 진흥의 계기가 되었다고 파악하였다.³¹⁾ 또한, 그는 여진의 민족의식이라는 측면에서 毛隣衛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던 浪孝兒罕 사건을 바라보았다. 낭발아한은 조선의 우대를 받기도 했지만, 여러 오해를 받은 끝에 살해당하였다. 謝肇華는 여기에 주목하여 이 사건 때문에 여진인이 국가와 민족구속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승화되었다고 본 것이다.³²⁾

苗威는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건주여진과 모련위의 성립 이후 이들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양자가 때로는 군사적 충돌, 때로는 평화를 지향했던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세조대 모련위 정벌 이후 압박을 느낀 모련위의 상당수가 파저강의 건주위로 이주하였고, 이 때문에 건주여진의 세력

27)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많지만 최근 탈경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다함의 연구가 주목된다(「조선 태종 5년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明 “入朝”를 둘러싼 朝鮮과 明과 동맹가첩목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탈중심적/탈경계적 해석」, 『민족문화연구』 72, 2017).

28) 여기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다음의 연구에 정리되어 있다(박정민, 「태종대 제 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 『백산학보』 80, 2008).

29) 劉陽, 「“庚寅事變”始末之再考察」, 『韓國研究論叢』 27, 2014.

30) 樂凡·杜燕萍, 「明代女真的集聚與整合」, 『東北史地』 2006-1.

31) 謝肇華, 「評析朝鮮對建州衛女真的第一次用兵」,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4. 1433년 파저강 정벌 등 조선의 여진 정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규철의 연구가 자세하다(이규철,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2) 謝肇華, 「浪孝兒罕事件與女真民族精神的覺醒」, 『滿族研究』 2005-3. 그는 여진인의 국가와 민족의식이 발현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었다. ① 명에서 이를 중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소득이 없자 국가라는 관념을 떠올리게 되었다. ② 외부의 압박에 대한 여진인의 투쟁 정신이 발현되었다. ③ 낭발아한의 아들 아버지 등이 타부족과 연합하여 조선을 여러 차례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³³⁾

압록강 유역에서 건주여진과 함께 생활했던 ‘寄住毛憐衛’의 정체를 밝힌 연구도 눈길을 끈다. 1410년에 모련위의 劉把兒遜 등이 살해당한 후 모련위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이만주의 아들인 猛哥不花가 모련위를 관할하였다. 하지만 맹가불화 부자가 輝發河 유역의 건주위에 거주했기 때문에 두만강 일대는 여전히 유파아손의 자손이 관할했고, 모련위는 건주위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적 세력이라고 보았다. 실상 ‘기주모련위’는 낭발아한 일족의 西遷과 궤를 같이 하고, 중종대 이후 기주위는 기주모련위의 핵심 부분으로 ‘冒稱衛名’이라고 강조하였다.³⁴⁾

누르하치의 흥기는 동아시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으므로 여기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들이 많았다. 먼저, 宋慧娟은 1595년의 위원채삼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충일이 바라본 여진 사회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후 조선의 건주여진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상의 변화 과정을 살폈다. 결국 조선은 명과의 종변관계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북방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한다.³⁵⁾

한편, 1607년(선조 40)에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누르하치와 우라(烏拉: Ula)의 부잔타이(布占泰: Bujantai)가 경쟁하였던 縣城과 烏碯巖 전투를 다룬 연구도 있다. 여기에서 李明澤은 양자가 쟁탈전을 벌인 배경과 과정, 결과 등을 서술하였는데, 이 전투를 계기로 동북아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다.³⁶⁾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와르카부(瓦爾喀部)에 대해 周生美는 범위를 더 확장하여 누르하치 및 홍타이지 시기의 편입 과정을 검토하였다. 주목할 점은 누르하치 및 홍타이지가 이들을 통합할 때, 단순히 역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國人’, ‘新滿洲’ 등으로 동일 민족의식을 강화하여 귀부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³⁷⁾

蔣秀松은 명대 건주여진의 흥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무역, 교류, 심지어 成化 3년의 역과 같은 정벌까지 후일 건주여진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고찰하였다.³⁸⁾ 하지만 단편적으로 사료를 나열하여 실증적으로 이 내용을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감이 있다. 張士尊은 누르하치의 흥기 과정에서 흡수된 건주여진 5부의 하나인 董鄂部の 원류를 살펴보았다. 그는 조선 중기의 압록강 중류 유역에 거주한 온하위가 그 전신이라고 주장하였다.³⁹⁾ 하지만 온하위가 성립하는 과정, 거주 지역⁴⁰⁾ 등을 보았을 때 동약부와 관련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 조선과 명의 여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於曉光은 임진왜란기 명과 조선은 여진인에

33) 苗威, 「建州、毛憐二衛設置後同李氏朝鮮的關係」, 『延邊大學東疆學刊』 2001-3.

34) 張雅婧, 「明代“寄住毛憐衛”女真考述」,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5.

35) 宋慧娟, 「宣祖時期朝鮮與建州女真關係的調試」, 『東北史地』 2011-4.

36) 李明澤, 「明末建州、烏拉間的圖們江瓦爾喀之爭－兼論東北亞秩序的變遷」,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4 물론 이와 같은 논의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해당 사건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7) 周生美, 「試論清入關前後金對瓦爾喀部的征服」, 『才智』 2016-23.

38) 蔣秀松, 「明代建州女真興起原因略探」, 『東北史地』 2008-5.

39) 張士尊, 「建州女真董鄂部族源考」, 『東北史地』 2007-2.

40) 河內良弘, 「溫河衛考」, 『朝鮮學報』 37·38, 1966; 박정민, 「溫河衛의 성립과 조선과의 관계」, 『군사연구』 143, 2017; 박정민, 「임진왜란 이전 온하위의 거주지 검토」, 『역사와 현실』 109, 2018.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였음에 주목하였다. 여진 사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명과 조선에 위협으로 다가왔다. 명조의 대여진 정책은 이이제가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여진은 통일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은 여진의 위협을 예견했고, ‘以倭攻胡’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당시 동북지구의 복잡한 형세 등으로 명과 조선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임진왜란 이후 건주여진은 더욱 강성하여 명과 조선의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⁴¹⁾

여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馬維英은 누르하치 굴기 시기였던 선조대 인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다. 선조대 초기만해도 전통적인 인식과 같이 누르하치 등을 ‘이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구축’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누르하치의 세력 확대와 더불어 점차 이들은 방비의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역관계에 따라 조선은 기존의 ‘번리’ 의식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선조대 이러한 인식의 변화 양상은 후일 청과 조선 관계의 원류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⁴²⁾

Ⅲ. 영토사

조선과 여진 관계의 연구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영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공민왕 이후부터 고려는 동북면 일대의 영토를 확장하였고, 조선의 영토 확장은 4군 6진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여진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에서는 현재 양자의 국경을 이룬 배경이 되는 조선 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刁書仁은 고려 말부터 세종대 6진 개척 시기까지 東端(두만강 유역)의 북진 정책을 여진 관계의 변화와 결부시켰다. 결과론적으로 영락제가 10처 여진인 귀속문제를 허가해주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이것은 큰 실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집권층에서 이 지역에 대한 영토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인정한 것도 주목할 수 있다.⁴³⁾

陳慧는 15세기 이전 두만강 양안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여진족의 영역으로, 명의 초무로 양안에 지방행정 기구인 위소를 설치하였고, 南岸 역시 명의 영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건주위, 모련위 등 두만강 유역에 설치했던 여러 위소를 나열하고 있다. 반면 조선은 정벌 등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15세기 중엽에 6진을 설치한 뒤, 중국과 조선 양국의 경계가 되었다고 보았다. 여기서 핵심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 추장들이 명황제에게 위소의 인신을 받으며 조정에 편입되었다는 점과 貢賦의 개념으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명의 지방행정 조직에 들어있다는 것이다.⁴⁴⁾

41) 於曉光, 「“以夷制夷”與“以倭攻胡”－壬辰戰爭期間明朝與朝鮮對女真政策的比較研究」, 『濰坊學院學報』 2006-1.

42) 馬維英, 「朝鮮對努爾哈赤勢力認識的深化及應對－以《宣祖實錄》爲中心的分析」,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2.

43) 刁書仁, 「明前期中朝東段邊界的變化」, 『史學集刊』 2000-2; 刁書仁, 「論元末明初中國與高麗、朝鮮的邊界之爭」,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1-1.

44) 陳慧, 「試析15世紀中葉圖們江成爲中朝界河」, 『中國邊疆史地研究』 2007-3.

이러한 주장은 현재 중국에서 여진인을 바라보는 기본적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바로 楊陽 등이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명대 동북지역 및 두만강 유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다.⁴⁵⁾ 하지만 이는 이 지역 여진인들이 조선에 보인 태도를 통해 간단히 반박할 수 있다. 이들은 조선에 조공하였고, 조선 국왕으로부터 여러 관직을 받았다.⁴⁶⁾ 楊陽 등의 논리라면 조선이 두만강 건너편의 여진 지역까지 편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연구 역시 최근 중국의 영토관을 여진인에게 투영하여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李花子は『金史』의 曷懶甸에 대한 위치, 『고려사』 「지리지」, 「세가」의 기술과 고려와 명의 철령위 설치 분쟁 과정 등을 통해 공험진의 위치를 길주로 비정하였다.⁴⁷⁾ 하지만 조선초에 들어가면서 공험진은 더욱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파악하였다. 이것을 조선이 두만강 이남 여진인을 제어하고, 두만강을 동북의 경계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고려와 조선의 영토 확장 과정을 여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점유의 실행이자 명과 외교 각축의 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공험진의 위치를 분석하였다.⁴⁸⁾ 이 연구는 기존 중국의 연구와 달리 한국과 중국 등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고, 다양한 사료를 통해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劉陽은 중국과 한국의 영토 원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 『朝鮮初期中朝自然界河的形成研究』를 발표하였다.⁴⁹⁾ 그는 10세기부터 15세기 중엽 4군 6진의 개척까지 살펴보고 조선의 북진 정책은 고려를 계승하였다고 이해하였다. 특히, 1433년의 “癸丑 파저강 정벌”과 “癸丑 아목하 사변”을 계기로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4군 6진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주목하였다. 그는 조선이 4군 6진을 구축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내용이 논문 대다수를 차지한다.⁵⁰⁾ 이 논문은 4군 6진의 복잡한 치폐 과정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설치 이후 조선의 6진 확보 과정 및 4군의 폐지 등을 통시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후 劉陽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심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그는 중국과 한국의 영토가 두만강을 경계로 한 역사적 연원을 탐구하였다. 즉, 조선이 14세기 후반 두만강 하류를 차지한 기점부터 15세기 중엽 6진 개척을 통해 중류, 17세기에 무산, 18세기 이후 감계 문제를 통해 경계의 확장과정을

45) 楊陽, 앞의 책, 2008.

46) 한성주, 앞의 책, 2011; 박정민, 앞의 책, 2015.

47) 공험진의 위치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여러 이설이 있다. 가장 최근에 최창국과 이인철 등은 두만강 이북 700리설에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최창국, 「先春嶺과 公嶮鎭 위치 고찰 - 『세종실록』 「지리지」 및 고지도, 현지답사 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43, 2017; 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9성의 위치 연구」, 『선도문화』 23, 2017). 하지만 윤경진과 정요근은 길주 이남설을 주장하였다(윤경진,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鎭 立碑」 문제」, 『역사와 실학』 61, 2016; 정요근, 「先春嶺과 公嶮鎭은 두만강 이북에 있었나?」, 『내일을 여는 역사』 66, 2017). 따라서 李花子가 공험진의 위치를 길주로 비정하였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48) 李花子, 「高麗末朝鮮初對公嶮鎭의歷史記憶」, 『朝鮮·韓國歷史研究』 12, 2011.

49) 劉陽, 앞의 논문, 2015.

50) 劉陽은 박사학위논문의 발표 전후로 4군 6진의 설치 과정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이는 박사학위논문에 대부분 전제되었다(「朝鮮王朝北方“六鎭”之會寧鎭與鍾城鎭의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4, 2013; 「朝鮮王朝北方“六鎭”之慶源鎭의設置沿革」, 『朝鮮·韓國歷史研究』 14, 2013; 「朝鮮王朝北方“六鎭”之穩城鎭의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5, 2014; 「朝鮮王朝北方“六鎭”之富寧鎭의設立」, 『朝鮮·韓國歷史研究』 16, 2015; 「朝鮮王朝慈城、茂昌、處丙三郡設置考」, 『東疆學刊』 2016-4; 「朝鮮王朝北方“六鎭”之慶興鎭의設置沿革」, 『朝鮮·韓國歷史研究』 17, 2016; 「朝鮮王朝前期の“廢四郡”問題研究」, 『暨南史學』 15, 2017; 「朝鮮王朝閔延郡設置考」, 『韓國研究論叢』 33, 2017).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劉陽은 기본적으로 두만강 남쪽도 중국의 영토였지만, ‘암묵적 관행’으로 조선이 차지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⁵¹⁾

또한, 조선이 1440년경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쌓은 장성(행성)의 기능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는 여진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고, 고려의 천리장성과 명의 장성 축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세종대는 축성을 위주로 했고, 세종대 이후에는 수축을 위주로 했다고 보았다. 劉陽은 장성은 조선의 연변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조선 축성사의 걸출한 대표작이라고 평가하였다.⁵²⁾ 하지만 축성 목적과 수축 방식, 방어체계 등에서 명의 장성 축조를 답습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장성은 북방의 소수민족과 농경민족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華夷’의 경계선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장성을 물리적 방식이 아닌 관념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劉陽은 15세기 중엽 이래 중국과 조선의 영토가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형성된 역사적 근원을 살펴보았다. 그는 기존에 조선의 북진으로만 설명되던 시각에서 벗어나 당시의 상황, 여진 관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劉陽은 조선이 기본적으로 고려·고려의 ‘북진’ 의식을 계승하여 15세기 중엽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고, 여진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保國封疆’의 사상을 정립한 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江防體系(沿江防禦體系)’를 구사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통일 체계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국경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³⁾

IV. 자료 관련

기존의 연구에서 조선과 여진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조선왕조실록』과 『명실록』 등을 이용하였다. 이외 임진왜란기인 1595년과 1596년에 신충일이 누르하치의 피알라(佛阿拉: Fe Ala)성에 다녀온 뒤 작성한 『건주정도기(건주탐정기축)』와 1619년의 사르후 전투에서 강홍립과 함께 사로잡힌 이민환이 이듬해 7월까지 허투알라에 머물며 보고 느낀 내용을 조선에 귀국한 뒤 작성한 『건주문견록』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대인이 경험한 바를 직접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았다.⁵⁴⁾

중국에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두 자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1595년부터 1596년 사이에 건주여진을 다녀온 신충일이 작성한 『건주정도기(건주탐정기축)』로 조선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 劉秉虎는 신충일의 파견 배경, 피알라 성의 형태 및 17개 조항, 주장명과 호수, 군대의 형태 등을 분석하였고,

51) 劉陽·金成鎬, 「中朝圖們江界河形成源流略考」, 『史學集刊』 2015-5.

52) 劉陽, 「朝鮮王朝前期의 北方沿江行城建置及其防禦功能」, 『世界歷史』 2017-3.

53) 劉陽, 「15世紀中葉以來中朝鴨綠江與圖們江界河形成的歷史根源探析」,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3.

54)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다음의 연구에 정리되어 있다(유지원, 「조선인의 기록을 통해 본 滿洲의 都城」,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13, 2012; 박정민, 「임진왜란기 조선과 건주여진의 교통로 복원 - 『건주정도기』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129, 2018; 閻家禎, 앞의 논문, 2018, 6~10쪽).

이를 통해 당시 조선과 누르하치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⁵⁵⁾ 劉廣銘은 『건주기정도기』를 통해 조선인이 여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조선인은 기본적으로 여진인을 멸시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성장을 직접 바라보며 조만간 국가에 화를 입힐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시각으로 변화한 과정에 주목하였다.⁵⁶⁾

『건주문견록』을 통해 여진의 지리와 여진인 형상을 묘사한 연구도 있다. 劉廣銘은 이때가 되면 건주여진이 『건주기정도기』 제작 시기보다 강해져 방어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점을 토대로 조선에서 이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강조하고 있다.⁵⁷⁾

孫悅은 건주여진의 사회생활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크게 음식, 복식, 주거, 의례, 혼인 등을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당시 건주여진의 사회는 점차 생산력이 발전하고 있었고, 홍타이지대에 이르러 한족의 제도와 문화 영향을 받아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⁵⁸⁾ 이 연구는 개설적인 수준에서 간략히 현황을 파악하여 본격적인 『건주문견록』에 관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주여진이 만주족 형성사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건주여진에 대한 연구가 만주족 연구의 한 방면이라는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중국 학계에서 건주여진에 관해 관심을 갖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건주기정도기』와 『건주문견록』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聞家禎이다. 그는 『건주기정도기』의 내용, 발견 과정, 작가인 신충일의 활동 등을 통해 문헌적 가치를 밝혔다. 특히, 당시 건주여진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저서라고 강조하였다.⁵⁹⁾ 이후 『건주기정도기』를 통해 농업생산과 피알라성의 건축 및 구조, 후금 초기의 사회생활, 누르하치 등의 복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건주여진은 이전 부족시대 보다 발전했지만 아직 후금과 같은 발전 단계는 이루지 못하였다고 보았다.⁶⁰⁾ 또한, 『건주기정도기』의 군사관련 내용을 『청태조실록』, 『청사고』, 『동화록』, 『명실록』 등 다양한 사료와 사실 관계를 교차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소한 군사 문제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풍부하다고 주장하였다.⁶¹⁾

聞家禎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에 『《建州紀程圖記》《建州聞見錄》校釋與研究』라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⁶²⁾ 그는 제목처럼 양 사료의 작성배경과 교열·해석, 내용분석의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머리말에서도 말했듯이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식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도 양 사료에 대한 소개가 있기는 했지만,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주지하다시피 『건주기정도기』는 1596년에 신충일이 건주여진에 다녀와서 보고하였고, 『건주문견록』은 이 민환이 1619년에 강홍립을 따라 深河 전투에서 패한 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선에 돌아온 뒤에 작성하였다. 약 20년의 시차가 있지만 당시는 누르하치의 세력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양자

55) 劉秉虎, 「建州女真與朝鮮交涉之研究－以《建州探情記軸》爲中心」, 『大連大學學報』 2003-3.

56) 劉廣銘, 「《建州紀程圖記》中的女真人形象」, 『東疆學刊』 2004-4.

57) 劉廣銘·徐東日, 「《建州聞見錄》中的女真人形象」,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1.

58) 孫悅, 「從《建州聞見錄》中淺談建州女真社會生活」, 『環球人文地理』 2014-4.

59) 聞家禎, 「《建州紀程圖記》文獻學研究」, 『蘭州教育學院學報』 2014-7.

60) 聞家禎, 「《建州紀程圖記》考略」, 『黑龍江民族叢刊』 2017-1.

61) 聞家禎·李德山, 「《建州紀程圖記》軍事內容考略」, 『古籍整理研究學刊』 2017-2.

62) 聞家禎, 앞의 논문, 2018.

를 통해 당대를 비교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착목하여 聞家禎은 본 논문을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건주여진의 사회, 조선과의 관계, 누르하치와 관련된 내용, 폐알라성과 허투알라(赫圖阿拉: Hetuola)성, 후일 팔기제로 정착되는 旗制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에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校注 부분은 기존에 나온 자료들 보다 꼼꼼하게 작성하였고,⁶³⁾ 지명 등에도 나름의 위치 비정을 하는 등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건주기정도기』에 기재된 관습법이 청 이전 법률제도의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의미부여하고 논증하는 과정, 팔기제도의 원형이 되었음을 밝히는 사례 등도 청초의 여러 사료 등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논증하였다.⁶⁴⁾ 물론 기본적으로 사료를 나열하는 경향도 있고, 이민환에 대한 소개는 별 사료 비판 없이 그와 관련된 행장과 신도비명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 일부 위치 비정에서 오류를 보이기도 하고, 기초적인 내용에서 오해한 내용도 있다. 또한, 여진인을 자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聞家禎은 『건주기정도기』와 『건주문견록』이라는 일차 사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당대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중국 학계의 대여진 연구 지평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인물사

조선과 여진 관계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여진 인물 중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이지란과 건주위 대추장인 이만주, 건주우위를 세운 범찰, 조선과 명의 분쟁 원인으로 작용한 모련위의 낭발아한 등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인물을 통해 사건과 부족의 변천 과정 등을 밝히는 데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王永一은 이지란의 군사 활동과 정치적 성장, 위화도 회군에서의 활약, 조선 건국에서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북면 일대에서 여진 세력을 통괄하고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이지란이 공신에 녹훈되어 정계에서 활약한 내용과 동북면도안무사로 동북면 여진을 안정시키는 과정을 검토하였다.⁶⁶⁾

文鍾哲 역시 여진족 주장이었던 이지란이 이성계의 휘하에서 활약하며 개국공신이 되는 과정을 시간의 추

63) 遼寧大學曆史系, 「建州見聞錄校釋」, 『清初史料叢刊』 9, 遼寧大學出版社, 1978; 遼寧大學曆史系, 「建州紀程圖記校注」, 『清初史料叢刊』 10, 遼寧大學出版社, 1979.

64) 물론 기존 연구 성과 보다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 경향보다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누르하치 당시의 법률, 팔기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旗田巍, 「滿洲八旗의成立過程に關する一考察」 『東亞論叢』 2, 1940; (劉小萌(저), 이훈·이선애·김선민(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Pamela Kyle Crossley(저), 양휘웅(역), 『만주족의역사: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2013).

65) “女眞, 是我國古代東北地區肅慎族系的重要成員, 其先世肅慎族在殷周時期即已活躍在我國東北地區。(聞家禎, 앞의 논문, 2018, 70쪽).

66) 王永一, 「李之蘭研究: 以朝鮮王朝建國與女眞勢力關係爲中心」, 『韓國學報』 2004-18; 王永一, 「朝鮮初期女眞族裔大臣李之蘭在政界的活躍」, 『中國邊政』 2009-177 사실 이 논문들은 그가 2003년에 발표한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王永一, 「李之蘭에 대한 研究: 朝鮮建國과 女眞勢力」,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에 따라 서술하였다. 이 중 그 후예가 조선의 문화 관습 등을 받아들이며 조선인으로 융합되고, 조선인의 일원이 되었다고 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지란이 악비의 후손으로 고려의 동북면까지 왔다는 내용을 기재한 『청해이씨세보』를 사료비판 없이 그대로 서술한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⁶⁷⁾

王雁은 건주여진의 유력한 주장이었던 이만주가 대해 다루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만주가 압록강 유역에 거주한 1423년부터 사망한 1467년까지 활동을 주로 살펴보았다. 그는 봉주(길림성 매하구시 해룡진) 일대에 거주하다가 1423년경부터 압록강 지류의 웅촌 → 오미부 → 오녀산 → 웅촌 주변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만주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주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변 세력과의 분란이었고, 이 논문은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초기 400여 호였던 세력이 사망 시점에 2,300여 호로 5배 이상 증가한 점을 주목하며 이만주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王雁은 이만주가 명의 요동과 조선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고, 건주여진의 세력 확대와 후일 만주족 흥기의 기초를 닦았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했던 이만주가 명 조정의 경시와 조선의 자의적인 중국 영토 침입 때문에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고 한다.⁶⁸⁾ 이 연구 역시 이만주의 건주여진이 중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기본 시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張春梅 역시 王雁과 동일한 시기, 즉 이만주가 파저강(修佳江)에 정착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만주가 파저강 유역으로 남천하는 과정을 다룬 후, 그가 사망한 것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八旗滿洲氏族通譜』에도 등장하는 만주의 성씨 중 하나인 修佳氏가 이만주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근거로 이만주의 후대로 보이는 완안부, 동약부 등이 누르하치에 병합될 당시 파저강 일대에 있었고, 修佳江이라는 지명도 “修佳氏”에서 나왔다는 것을 들고 있다.⁶⁹⁾

王臻은 낭발아한(郎卜爾罕) 사건에 대한 명과 조선의 정책을 비교하였다.⁷⁰⁾ 그는 낭발아한에 대한 명조의 회유책과 조선의 은위병용책을 각각 살펴 본 후, 낭발아한 사건에서 명과 조선의 교섭 내용을 검토하였다. 주목할 점은 王臻이 명, 조선, 여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명은 조선과 여진이 충돌하자 조선에 온화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진의 발전을 억제하였다고 보았다. 여진은 명조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自衛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선회하였다고 한다. 즉, 혈족의 복수라는 형식으로 명과 조선의 경계를 공격하였고, 이 때문에 조선과 끊임없이 충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의 회유책과 강정책(타격)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조선이 최종적으로 여진부족을 조선의 羈縻控制圈 안에 둔 후, 복진 강역 개척의 밑거름으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보았다.

67) 文鍾哲, 「從女眞千戶到朝鮮王朝的開國功臣 - 青海李氏家族始祖李之蘭評介」,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4-5.

68) 王雁, 「女眞首領李滿住在鴨綠江流域的活動」, 『東北史地』 2006-2.

69) 張春梅, 「李滿住與修佳江考」, 『黑龍江民族叢刊』 2016-4. 그 개연성 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한 측면이 있다. 향후 만주어자료 및 동가씨의 후예에 대한 족보와 인터뷰 등을 보완한다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외 王臻의 연구가 있지만, 이는 그의 박사학위논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建州女眞李滿住部與朝鮮王朝的關係探析」, 『北方民族』 2007-3). 그의 범찰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이다(「建州女眞凡察部與朝鮮關係述論」, 『東北史地』 2008-1).

70) 王臻, 「明朝與李朝在郎卜爾罕問題上的政策之比較研究」, 『史學集刊』 2006-1. 謝肇華의 연구는 앞에서 다루었기에 생략한다(「浪李兒罕事件與女眞族民族精神的覺醒」, 『滿族研究』 2005-3).

Ⅵ. 무역사

조선 전기 여진인은 사냥과 목축, 농업 등을 주업으로 삼았다. 물론 농사도 일부 짓기는 하였지만, 주변의 조선과 명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생산되는 우수한 초피, 말 등을 주변의 조선과 명에 팔고 식량과 생활용품,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무역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조공 역시 명 황제 혹은 조선 국왕의 지배 아래 편입하는 형식을 가졌지만, 실상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에게 무역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여러 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000년대 이후 연구 성과는 여진의 무역 관계망과 변경의 호시 무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은 여진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刁書仁은 조선과 여진의 조공 무역, 변경의 호시 무역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다. 여진은 조선과 무역을 통해 경제력뿐만 아니라 鍛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조공 무역 역시 경제력 발전과 더불어 조선의 ‘小天朝’의식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⁷¹⁾ 여진에 대한 조선의 우월 의식을 ‘소천 조’라고 부른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넓은 시각에서 여진의 무역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있어서 주목된다. 樂凡은 여진의 관점에서 명과 조선의 무역에 대해 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⁷²⁾ 그는 여진인의 무역 관계망을 명 조정, 요동 漢人, 조선 조정, 조선 백성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다시 조선의 5진, 野人女眞, 몽골, 심지어 명 강남까지 그 범위에 포함하였다. 樂凡은 각 방면의 무역 사례를 일일이 제시한 후 무역 관계망의 형성이 여진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다.⁷³⁾

이후 樂凡은 위의 논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명대 여진 상인이 『요동지』에 기재된 교통로를 이용하여 조공무역 등의 형태로 모피 등 특산품을 북경까지 가져왔고, 강남의 견직물 등을 여진 지역까지 유통한 점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피와 같은 자신들의 특산품과 강남의 견직물을 조선과 일본, 심지어 현재의 홋카이도(北海道) 등까지 판매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역로를 ‘동북아의 실크 로드’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료 등이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여진의 무역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시각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⁷⁴⁾

周生美는 무역의 주요 방식을 조공과 변경의 호시무역으로 구분하여 조선 초부터 청대 경원, 회령 開市까지 두만강 유역의 조선과 여진의 무역 양상에 대하여 간략히 파악하였다. 양자의 무역으로 조선은 이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변경의 안정을 가져왔고, 여진은 생활용품 등을 구매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성장할

71) 刁書仁, 「明代女眞與朝鮮的貿易」, 『史學集刊』 2007-5.

72) 사실 그는 여진인의 무역을 주제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조선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었다.

73) 樂凡, 「明代女眞族的貿易關係網及社會效應」, 『北方文物』 2000-1.

74) 樂凡, 「明代女眞商人與東北亞絲綢之路」, 『東北史地』 2015-6. 이러한 시각으로 한성주의 연구가 있다(「근세 한·중·일의貂皮 무역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2018).

수 있었다고 보았다.⁷⁵⁾

譚春陽은 조선과 여진의 변경 호시에 더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그 역시 두만강 유역의 호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15세기 초반,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으로 나누어 본 후, 양자의 무역으로 여진의 농업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양자의 무역으로 여진의 발전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선에서 철물 및 農牛의 유출 등으로 함경도 일대의 농업생산력이 정체되고, 경제력도 약화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었던 사실도 지적하였다.⁷⁶⁾

Ⅶ. 맺음말

지금까지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진행되어 온 조선과 여진 관계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삼성 특히, 吉林省에서 활약하는 연구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박사논문의 경우 5편 중 3편이 延邊大學이고, 東北師範大學도 1편이 있다. 학술논문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인다. 刁書仁和 欒凡, 鄭紅英, 陳放, 周生美 등과 같이 길림성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王臻과 陳慧, 劉陽처럼 길림성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서 연구하는 사례도 있다.⁷⁷⁾ 앞으로도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동북삼성의 연구자들이 조선과 여진 관계 연구를 주도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최근 들어 연구 성과가 증가하고,⁷⁸⁾ 소수의 다작 연구자를 제외하고 다양한 연구자가 공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 시기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박사논문 5편, 학술논문 63편이 제출되었다. 학술논문의 경우 연평균 3.5편이 게재되었는데, 연도별로 보더라도 <표 2>와 같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2014년에 7편, 2015년에 5편, 2016년에 6편, 2017년에 7편으로 이전보다 미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구자별로, 劉陽이 12편으로 가장 많고, 刁書仁이 10편, 王臻이 5편, 聞家禎과 於曉光, 欒凡이 각각 3편이다. 이외 2편을 쓴 사람도 陳放을 포함하여 5명이고, 1편만 쓴 사람은 16명에 이른다. 이는 한 ·

75) 周生美, 「略論明代圖們江流域與朝鮮的貿易往來」, 『山西青年』 2015-23.

76) 譚春陽, 「明代女真與朝鮮王朝的邊境互市」, 『環球人文地理』 2016-4.

77) 연변대학은 중국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로 손꼽히고, 여진인의 활동 범위와 일치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 조선과 여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북사범대학은 동북공정에도 참여하고, 소수민족에 관심을 갖는 刁書仁과 李德山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 聞家禎과 張雅婧 같은 후속 세대가 나왔다. 張雅婧은 刁書仁의 지도를 받아 명대 해서 여진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대상이 달라서 포함시키지 않았다(『明代海西女真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5).

78) <표 2> 2000년 이후 연도별 중국 학계의 조선과 여진 연구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편수	3	5	2	2	3	1	5	5	3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편수	1	3	3	0	2	7	5	6	7

두명을 제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채로운 주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⁷⁹⁾

셋째, 2002년에 실시한 동북공정의 영향으로, 중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刁書仁 등 2000년대 초반의 학자들은 여진에 대한 명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정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동북공정 이후 학자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만주족에 대한 연구로서 건주여진을 비롯한 여진을 대상화하였다. 즉, 숙신-읍루-물갈-말갈-여진-만주족으로 이어지는 역사 인식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진을 명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시각을 근거에 깔고 있다.

넷째, 조선과 여진 관련 연구자가 증가하고, 주제 역시 다양해지며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그동안 중국 학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료의 나열과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논지 전개, 개별적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 자국 혹은 일본과 한국 등 외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점도 여전하다. 최근 제한적이거나 한국의 자료를 읽고 연구 성과에 반영하는 세대가 등장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 관계사에 집중되었던 연구의 경향이 영토, 자료, 무역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전에는 여진 자체 혹은 여진과 명, 여진과 조선 등 단선적인 시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조선뿐만 아니라 명, 몽골 등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거시적인 틀에서 조망한다는 점도 특기할 수 있다. 일부지만 여진이 조선과 명에 양속적 관계였음을 주장하거나 조선의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어 주목된다.⁸⁰⁾

아직 한국과 중국 학계 간의 이해관계, 언어의 차이, 연구 지형 등에 따라 조선과 여진의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과 시각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신진 연구자들이 양측의 자료도 이용하고, 양자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향후 양국 간의 역사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역사 교류의 장의 연구자들을 역사 교류의 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저서

王永一, 『李之蘭에 대한 研究: 朝鮮建國과 女眞勢力』,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이규철,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79) 특이하게 조선과 여진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한 5명 가운데 현재까지 동일한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는 劉陽밖에 없다. 최근 聞家禎이 박사논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동향을 지켜봐야하겠지만, 그를 제외하고 4명 가운데 1명만 연구를 진행하는 점은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80) 이외 연구 주제별로 조선과 명의 가까이에 거주했고,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건주여진에 관한 연구 성과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박정민,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2015.
- 遼寧大學曆史系, 「建州見聞錄校釋」, 『清初史料叢刊』 9, 遼寧大學出版社, 1978.
- 遼寧大學曆史系, 「建州紀程圖記校注」, 『清初史料叢刊』 10, 遼寧大學出版社, 1979.
- 王臻, 「朝鮮前期與明建州女真關係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 於曉光, 「明朝與朝鮮圍繞女真問題的交涉研究(1369年~1619年)」,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孟森, 『明元清系通記』, 中華書局, 2006.
- 楊陽, 『明代東北疆域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8.
- 鄭巖, 「明前期建州女真歷史考察」,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 陳放, 「朝鮮與女真、滿族諸政權關係變遷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 劉陽, 「朝鮮初期中朝自然界河的形成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 張雅婧, 「明代海西女真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 聞家禎, 「《建州紀程圖記》《建州見聞錄》校釋與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8.
- 劉小萌(저), 이훈·이선에·김선민(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 패멀라 카일 크로스리(Pamela Kyle Crossley)(저), 양희웅(역), 『만주족의 역사: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2013.

2. 논문

- 박정민, 「태종대 제 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 『백산학보』 80, 2008.
- 박찬홍, 「白鳥庫吉과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 유지원, 「조선인의 기록을 통해 본 滿洲의 都城」,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3, 2012.
- 정상우, 「滿鮮史와 日本史의 위상 - 稻葉岩吉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28, 2013.
- 박정민,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 - ‘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 정다함, 「조선 태종 5년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明 “入朝”를 둘러싼 朝鮮과 明과 동맹가첩목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탈중심적/탈경계적 해석」, 『민족문화연구』 72, 2017.
- 박정민, 「溫河衛의 성립과 조선과의 관계」, 『군사연구』 143, 2017.
- 최창국, 「先春峴과 公嶮鎭 위치 고찰 - 『세종실록』 「지리지」 및 고지도, 현지답사 등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43, 2017.
- 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9성의 위치 연구」, 『선도문화』 23, 2017.
- 윤경진,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鎭 立碑’ 문제」, 『역사와실학』 61, 2016.
- 정요근, 「先春嶺과 公嶮鎭은 두만강 이북에 있었나?」, 『내일을 여는 역사』 66, 2017.
- 박정민, 「임진왜란기 조선과 건주여진의 교통로 복원 - 『건주기정도기』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129, 2018.

- 박정민, 「임진왜란 이전 온하위의 거주지 검토」, 『역사와 현실』 109, 2018.
- 한성주, 「근세 한·중·일의貂皮 무역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2018.
- 刁書仁, 「論努爾哈赤征烏拉之戰」, 『吉林師院學報』 1987-2.
- 刁書仁, 「明成化年間明與朝鮮兩次征討對建州女眞」, 『史學集刊』 1999-2.
- 謝肇華, 「評析朝鮮對建州衛女眞的第一次用兵」,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4.
- 樂凡, 「明代女眞族的貿易關係網及社會效應」, 『北方文物』 2000-1.
- 刁書仁, 「明前期中朝東段邊界的變化」, 『史學集刊』 2000-2.
- 刁書仁, 「論元末明初中國與高麗、朝鮮的邊界之爭」,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1-1.
- 苗威, 「建州、毛憐二衛設置後同李氏朝鮮的關係」, 『延邊大學東疆學刊』 2001-3.
- 刁書仁, 「朝鮮使臣所見的建州社會—兼論後金建國前與朝鮮的關係」, 『滿族研究』 2001-2.
- 刁書仁, 「元末明初朝鮮半島的女眞族與明、朝鮮的關係」, 『史學集刊』 2001-3.
- 刁書仁·王劍, 「明初毛憐衛與朝鮮的關係」, 『明史研究』, 2001.
- 刁書仁, 「論明前期斡朵里女眞與明、朝鮮的關係」, 『明清史』 2002-3.
- 王臻, 「明代女眞族與朝鮮的邊貿考述」,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2-1.
- 於曉光, 「明朝與朝鮮圍繞女眞問題交涉論析」, 『重慶三峽學院學報』 2003-1.
- 劉秉虎, 「建州女眞與朝鮮交涉之研究—以《建州探情記軸》爲中心」, 『大連大學學報』 2003-3.
- 劉廣銘, 「《建州紀程圖記》中的女眞人形象」, 『東疆學刊』 2004-4.
- 王永一, 「李之蘭研究:以朝鮮王朝建國與女眞勢力關係爲中心」, 『韓國學報』 2004-1.
- 王臻·劉玉, 「關於朝鮮與明代建州女眞關係研究的理性思考」, 『東疆學刊』 2004-3.
- 謝肇華, 「浪字兒罕事件與女眞族民族精神的覺醒」, 『滿族研究』 2005-3.
- 劉廣銘·徐東日, 「《建州聞見錄》中的女眞人形象」,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1.
- 樂凡·杜燕萍, 「明代女眞的集聚與整合」, 『東北史地』 2006-1.
- 於曉光, 「“以夷制夷”與“以倭攻胡”—壬辰戰爭期間明朝與朝鮮對女眞政策的比較研究」, 『濰坊學院學報』 2006-1.
- 王雁, 「女眞首領李滿住在鴨綠江流域的活動」, 『東北史地』 2006-2.
- 王臻, 「明朝與李朝在郎卜爾罕問題上的政策之比較研究」, 『史學集刊』 2006-1.
- 陳慧, 「試析15世紀中葉圖們江成爲中朝界河」, 『中國邊疆史地研究』 2007-3.
- 於曉光, 「洪武時期明朝與朝鮮圍繞女眞問題的交涉初探」, 『韓國研究論叢』 2007-1.
- 刁書仁, 「明代女眞與朝鮮的貿易」, 『史學集刊』 2007-5.
- 張士尊, 「建洲女眞董鄂部族源考」, 『東北史地』 2007-2.
- 王臻, 「建州女眞李滿住部與朝鮮王朝的關係探析」, 『北方民族』 2007-3.
- 王臻, 「建州女眞凡察部與朝鮮關係述論」, 『東北史地』 2008-1.
- 蔣秀松, 「明代建州女眞興起原因略探」, 『東北史地』 2008-5.
- 刁書仁, 「明成化初年對建州三衛用兵考述」, 『中國邊疆史地研究』 2008-4.

- 王永一，「朝鮮初期女真族裔大臣李之蘭在政界的活躍」，『中國邊政』2009-177。
- 刁書仁，「正統年間建州左衛西遷考實：兼論東亞地區女真與明朝、李氏朝鮮的關係」，『中國邊疆史地研究』2010-4。
- 刁書仁，「景泰、天順年間建州三衛女真與明朝、朝鮮的關係」，『史學集刊』2010-1。
- 鄭紅英，「試論明朝對女真的招撫」，『黑龍江民族叢刊』2010-6。
- 李宗勳·陳放，「中國古代“封貢關係”新思考——論朝鮮與女真“封貢關係”的成因及影響」，『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1-6。
- 宋慧娟，「宣祖時期朝鮮與建州女真關係的調試」，『東北史地』2011-4。
- 李花子，「高麗末朝鮮初對公嶮鎮的歷史記憶」，『朝鮮·韓國歷史研究』12，2011。
- 劉陽，「朝鮮王朝北方“六鎮”之會寧鎮與鍾城鎮的設立」，『朝鮮·韓國歷史研究』14，2013。
- 劉陽，「朝鮮王朝北方“六鎮”之慶源鎮的設置沿革」，『朝鮮·韓國歷史研究』14，2013。
- 劉陽，「朝鮮王朝北方“六鎮”之穩城鎮的設立」，『朝鮮·韓國歷史研究』15，2014。
- 孫悅，「從《建州見聞錄》中淺談建州女真社會生活」，『環球人文地理』2014-4。
- 聞家禎，「《建州紀程圖記》文獻學研究」，『蘭州教育學院學報』2014-7。
- 陳放，「朝鮮與女真、滿族諸政權關係變遷研究綜述」，『內蒙古財經大學學報』2014-4。
- 劉陽，「“庚寅事變”始末之再考察」，『韓國研究論叢』27，2014。
- 張雅婧，「明代“寄住毛憐衛”女真考述」，『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4-5。
- 文鍾哲，「從女真千戶到朝鮮王朝的開國功臣——青海李氏家族始祖李之蘭評介」，『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2014-5。
- 馬維英，「朝鮮對努爾哈齊勢力認識的深化及應對——以《宣祖實錄》為中心的分析」，『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5-2。
- 劉陽·金成鎬，「中朝圖們江界河形成源流略考」，『史學集刊』2015-5。
- 樂凡，「明代女真商人與東北亞絲綢之路」，『東北史地』2015-6。
- 周生美，2015，「略論明代圖們江流域與朝鮮的貿易往來」，『山西青年』2015-23。
- 劉陽，「朝鮮王朝北方“六鎮”之富寧鎮的設立」，『朝鮮·韓國歷史研究』16，2015。
- 譚春陽，「明代女真與朝鮮王朝的邊境互市」，『環球人文地理』2016-4。
- 劉陽，「朝鮮王朝慈城、茂昌、虞芮三郡設置考」，『東疆學刊』2016-4。
- 劉陽，「朝鮮王朝北方“六鎮”之慶興鎮的設置沿革」，『朝鮮·韓國歷史研究』17，2016。
- 王磊，「1435~1464年女真對明朝與朝鮮的朝貢爭端」，『長江叢刊』2016-6。
- 張春梅，「李滿住與修佳江考」，『黑龍江民族叢刊』2016-4。
- 周生美，「試論清入關前後金對瓦爾喀部的征服」，『才智』2016-23。
- 劉陽，「朝鮮王朝前期的“廢四郡”問題研究」，『暨南史學』15，2017。
- 劉陽，「朝鮮王朝間延郡設置考」，『韓國研究論叢』33，2017。
- 劉陽，「朝鮮王朝前期的北方沿江江城建置及其防禦功能」，『世界歷史』2017-3。
- 劉陽，「15世紀中葉以來中朝界線與圖們江界河形成的歷史根源探析」，『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7-3。

聞家禎, 「《建州紀程圖記》考略」, 『黑龍江民族叢刊』 2017-1.

聞家禎·李德山, 「《建州紀程圖記》軍事內容考略」, 『古籍整理研究學刊』 2017-2.

李明澤, 「明末建州、烏拉間的圖們江瓦爾喀之爭－兼論東北亞秩序的變遷」,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4.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9일에 투고되어,
2018년 12월 1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Trends of Research on Joseon and Jurchen in China since 2000**

PARK, Jungmin*

This article analyzed the outcomes of research on Joseon and Jurchen by Chinese academics since 2000. The rise of Jurchen—an ethnic minority from a remote region formerly under the influence of Ming Dynasty and Joseon—and subsequent establishment of a great empire is an interesting topic. Historians have shown interest in Later Jin Dynasty and Jurchen before Later Jin Dynasty, and have conducted research from various angles. However, historical perception in China shifted slightly since the Northeast Asia Project, and the change was projected on the Jurchen relationship during Ming Dynasty.

Research trends on Joseon and Jurchen in China show that they have been led by historians from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particularly Jilin Province. And, influenced by the Northeast Asia Project, most studies regard Jurchen as subjugated to Ming Dynasty, based on the theory of unified multiracial nation. However, as new researchers emerge recently, the scope of research has expanded from a previous focus on the national relationship to various areas including territories, historical records, historical figures, and trade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Korean and Chinese academics, there is a wide discrepancy in research on Joseon and Jurchen in terms of the breadth of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s. However, if younger generation of researchers from Korea and China are willing to use the other's materials and understand the other's positions, it would be possible to narrow the chasm. To this end, broader exchanges need to be m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promote historical exchanges.

[Key Words] Joseon, Jurchen, Trends of Research, Northeast Asia Project, Unified Multiracial Nation

* Visiting Research Fellow, Jthink Institute